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0년 11월 후원미사는 16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20년 9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 13,319,070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체찬조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5,2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2,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1,2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1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100,000	의료비 등	
	인도네시아공동체	100,000	제전비 등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9,725,000		
	지원비	노동사목회관	2,4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1,194,070	운영비(행사비, 우편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13,319,070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펴낸날 2020. 10. 19.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수녀님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외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빠른 사회 환경의 변화만큼 의식의 변화도 함께 성장하여 모두가 행복한 이웃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라고 그 길을 가기 위해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여도 그중에 누군가는 가던 길을 헤메며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의 소임지에서 만나는 이주여성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주여성 폭력 쉼터가 제 삶의 자리가 된지 어느새 5개월을 넘어 서고 처음 낯설게 만났던 이주여성들의 삶이 어느새 내게도 익숙함으로 다가오면서 함께 살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 안에서 갈등과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도 경험하고 때론 하느님의 도우심을 만나며 은총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국땅에서 이주여성들의 삶은 누군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들이 맞이해야 하는 현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얽히고 꼬여버린 더 큰 문제 상황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주여성들은 현실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한 걸음을 시작하는 시간은 그들에게도 긴 시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건강한 새 출발을 위해 함께해야 하는 많은 지원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국을 떠나 더 큰 행복을 꿈꾸었던 그들이 행복한 시간을 누리기도 전에 가족갈등과 폭력에 노출되어 혼자가 되고 화해를 위해 애쓰던 시간들은 오히려 의사소통의 부재와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 불신의 시간을 확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 그들이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가족의 온기가 사라진 그들 삶에 기적처럼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져 건강한 가족 생활이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가족이 대부분입니다.

쉼터에서 만나는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젊은 어머니와 동반 자녀들로서 한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지만 실제 그들의 결혼생활은 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삶, 상처와 아픔이 깊어지면서 스스로 버거워 지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눈물의 시간을 걸어야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은총을 만나고 그들 인생에 큰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 보면서 그들을 지켜보는 지금 이 자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이국 땅에서 혼자 걷는 그들의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고 이 땅에서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것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나누며 함께 걷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장 아이네스 수녀

### 공동체 소식

#### 공지사항 소식지 발송 변경 사항\*

그동안 저희 이주사목위원회는 소식지 '좋은이웃'을 통해, 매일 십터와 국가별 공동체 소식 등 이주민 사목의 전반적인 활동을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보다 잘 선용하기 위해(소식지 발행 비용과 우편비 절감),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2021년부터 소식지와 지로의 발행주기를 격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발송되는 달은 1, 3, 5, 7, 9, 11월이 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상황에 불편함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후원회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02-924-9970/1)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공동체 소식\*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9월부터 이주사목위원회 국가별 공동체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인도네시아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데이 그라시아(Dei-Gratia, 라틴어 하느님의 축복)
- 구성원 : 약 45명(인도네시아, 동티모르, 기타)의 대학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 담당사제 : 미카엘 민두 신부(Fr. Mikael Mintu, 말씀의 선교 수도회)
- 설립 배경 : 2001년 서울과 주변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주도적인 정기 회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가톨릭 신앙의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말씀의 선교 수도회(SVD)가 이 선교 사도직에 응답하였습니다. 미사 참여하는 신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적절한 장소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2013년부터 본 위원회와 인연이 되었고 2020년 9월부터 교구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이주사목위원회 국가별 공동체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와 함께 이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 속의 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과 개인 영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추석 송편 만들기〉



〈코앤코 음악수업〉

#### 이주민을 위한 기도 \*

지난 달에 후원회원분들에게 소식지와 함께 상분(이주민을 위한 기도)을 발송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요셉,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이주민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해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이주민 또한 코로나19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재 기획 고선정 자매님 연재글\*

저희 위원회의 후원 회원이면서 작가로 활동 중이신 고선정 자매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스리랑카 문화와 이주민에 관한 글을 8월부터 연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스리랑카의 빛의 사원

저는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김영사, 2020)>의 저자 고선정(아퀼라)입니다. 스리랑카에 매료돼 2017년부터 3년간 십수 회 그곳을 오가며 스리랑카의 자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 나아가 산업과 종교 등을 총망라한 스리랑카 건문록이라는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의 소식지인 <좋은 이웃>에는 2005년부터 '베다니아의 집'을 후원해온 오랜 인연으로 8월을 시작으로 스리랑카를 소개하는 연재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총 4회로 기획된 연재 중 지난 두 개의 글에는 스리랑카의 가톨릭 현황과 한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해 살다가 돌아간 스리랑카인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불교 사원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이 사원은 불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스리랑카와 한국의 친밀도를 실감할 수 있는 흥밋거리가 간직된 곳이기도 합니다.

사원은 스리랑카의 중부, 마탈레라는 도시의 산중턱에 위치한 '알루 위하리야'라는 곳입니다. 아침의 태양빛을 받으면 개나리처럼 노랗게 피어나는 빛의 사원, 알루 위하리야. 깊은 유서를 자랑이라도 하듯 사원의 입구 양쪽으로는 키가 큰 아랄리아(스리랑카의 국화로, 주로 사원 안에 많이 심음)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원 앞쪽으로는 다게바(스리랑카 사원의 둥근 탑)가 위엄 있게 놓여 있습니다. 알루 위하리야의 후원에는 낫익은 범종 하나가 걸려 있는데, '나무아미타불'이라 적힌 글자와 세부적인 장식들이 얼핏 보기에도 한국에서 건넌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님나 다를까 지나가던 관리인이 제가 한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활짝 웃으며 범종의 뒷면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에서 'SOUTH KOREA'라 큼직하게 새겨진 글자를 직접 확인하니 스리랑카와 한국 불교 교단이 맺어온 교류의 시간이 짧지 않았겠다 짐작되었습니다.



사원의 박물관 안에는 스리랑카의 싱할라어로 '트리피타카야라 불리'는 '삼장'의 모조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예상하신 대로 '삼장'은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의 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 삼장법사가 삼장을 찾으러 향했어야 할 곳은 인도가 아닌 스리랑카였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지요. 스리랑카는 인도의 아쇼카 왕에게 탄압받던 불교가 새롭게 정착해 명맥을 유지하고, 불경을 '삼장'으로 성문화하여 오랜 시간 지켜낸 곳입니다. 바로 그 성문화의 현장이 '알루 위하리야' 사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장의 원본은 식민지 때 영국으로 반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불교 신자들이 성지순례지로 스리랑카를 찾곤 하는 것도 스리랑카의 심장부에 새겨진 부처님의 진한 가르침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주목하게 된 것은 첫 방문에서 만난 스리랑카인들의 미소와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인에게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환대와 '연대가 애초에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잠시 머무는 사람이며, 어디에 있든지 나그네이다.'라 강조하는 교황청의 훈령이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가까이 받아들이십시오(로마 15,7)."와 같은 성경 구절을 접해본 적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올해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움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가고 싶은 곳으로 선택 떠나거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쉽게 만나지질 않으니 새파랗게 높아만 가는 하늘이 야속하기조차 하죠. 국내에서도 이동이 쉽지 않은데 국경을 건너야만 그리운 사람, 추억이 깃든 장소에 가 닿을 수 있는 이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스리랑카를 여행하며 만났던 현지인의 미소를 떠올리며 이번 가을은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가슴으로 끌어안는 시간으로 보내야겠습니다.